

이천, 광주시 제치고 4연패 달성

25일 오후5시 포천시 선수단 해단식 가져

제50회 경기도체육대회에서 4연패의 쾌거를 달성한 포천시 선수단을 환영하는 카퍼레이드와 해단식이 25일 포천시 신읍동 일원과 포천시 종합체육관에서 잇달아 열렸다.

포천시 종합체육관을 출발해 신읍동 시가지를 거쳐 체육관으로 돌아오는 이날 카퍼레이드에는 체육대회에 출전했던 선수와 임원을 비롯해 박윤국 포천시장과 홍성훈 시의회의장, 각급 기관 단체장 등 모두 4백여 명이 참가했다.

카퍼레이드가 진행되는 동안 연도에 늘어난 많은 시민들은 선수단에 뜨거운 박수를 보내며 도체육대회 4연패 달성을 축하했다.

이어 포천시 종합체육관에서 열린 해단식에서 선수단은 종합우승기와 우승배를 시에 헌정했으며 포천시는 입상 선수와 우수지도자, 우수선수들에게 공로패를 전달하고 그간의 노고를 치하했다.

지난 5월 12일부터 14일까지 안양에서 열린 제50회 경기도체육대회에 포천시는 18개 전 종목에 358명의 선수와 임원이 출전에 15

개 시군이 겨룬 2부 대항에서 고장의 명예를 걸고 최선을 다한 결과, 종합점수 20,680점을 획득, 2위 오산시(15,612점)와 3위 이천시(14,566점)를 큰 점수 차로 제치고

시민의 숙원인 종합우승 4연패를 달성했다.

종목별 성적 역시 가장 많은 점수가 걸린 육상을 비롯해 테니스와 탁구, 역도, 배드민턴, 볼링, 보디빌딩 등 7개 종목에서 종합득점 1위를 차지하고, 축구와 검도, 폴프에서 2위, 배구와 태권도에서 3

위를 차지하는 등 18개 전 종목 가운데 12개 종목에서 3위 이내에 입상하는 뛰어난 성적을 거두었다. 이같은 성적은 포천시 보다 인구가 많은 구리와 이천, 광주시 등을 제치고 거둔 성과여서 의미가 더욱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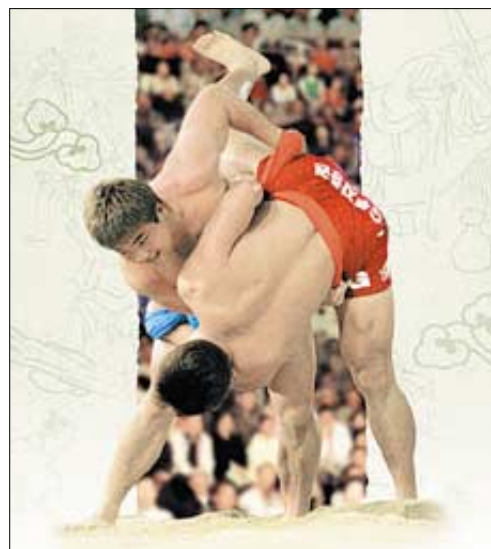
김영복 기자 best114@hitel.net



한국씨름연맹 주최 2004 의정부장사 씨름대회 제1회 포천시장배 동호인테니스대회

입장료 일반 2천원, 학생, 군경 1천원

19개 클럽 150여명 참석 성황



한국씨름연맹과 KBS한국방송공사가 주최하는 '2004 의정부장사 씨름대회'가 오는 6월 10일부터 의정부체육관에서 개최된다.

이번 대회는 6월10일부터 13일까지 4일간 의정부체육관에서 개최되며 의정부시체육회와 의정부시씨름협회가 주관하며 의정부시와 의정부시의회가 후원해 마련한다.

경기종목은 단체전 및 체급별(급강, 한라, 백두)장사 종목이며 참가팀은 ▶신창건설 코발소씨름

단 ▶LG투자증권 황소씨름단 ▶현대중공업 코끼리씨름단 등 3개팀이다.

경기일정은 6월10일 오후1시30분부터 단체전, 6월11일 오후2시부터 급강장사, 6월12일 오후2시부터 한라장사, 6월13일 오후2시30분부터 백두장사 경기가 진행된다.

이날 경기 입장료는 일반 2천원, 초·중·고 학생과 군인·경찰은 1천원이다.

입장권 예매는 의정부시 각 동사무소 및 농협중앙회 의정부·양주시지부에서 하며 의정부체육관에서는 대회기간중에만 판매한다.

65세이상 어르신들의 무료입장권은 대회기간중 현지(체육관)에서 신분증(40년이전 출생자) 확인 후 배부 하며 미취학아동은 입장권 없이 관람할 수 있다.

이날 경품추첨행사도 마련하며 경품은 승용차, 김치냉장고, TV, 세탁기, 자전거, 기타 가전제품 등이다.

김영복 기자 best114@hitel.net



포천시테니스협회(회장 고영일)는 지난 23일 포천 테니스장 등 4개 테니스장에서 제1회 포천시장배 동호인테니스대회를 개최했다.

테니스 동호인들간의 우의를 다지고 테니스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해 마련된 이날 대회에는 19개 클럽 150여명이 참가했다.

이날 대회는 금배부, 은배부, 동배부, 여성부 등으로 나뉘 실시됐으며 각 부별 우승, 준우승, 공동 3위 등으로 시상했다.

같이 뒤은 실력을 마음껏 선보였던 이날 대회에 대해 최승경 생활체육협의회 테니스지도자는 "포천 테니스 동호인 클럽은 전국대회 입상자를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며 "이번 대회를 잘 발전시켜 한수이북, 나아가 전국대회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밝혔다.

다음은 각 부별 입상자 명단이다.

■금배부 ▶우승 박정현(포천클럽) 김석훈(이동클럽) ▶준우승 고순성(정우클럽)이준학(내촌클럽) ▶3위 이상진 김무래(마홀클럽) ▶3위 최지현(마홀클럽)이상길(한내클럽)

■은배부 ▶우승 최정식 남민희(관인클럽) ▶준우승 이병윤 이운형(포천클럽) ▶3위 이수모 김사득(골드클럽) ▶3위 김종웅 오승탁(골드클럽)

■동배부 ▶우승 고정의 김한길(한내클럽) ▶준우승 허범삼 박상조(정우클럽) ▶3위 이기희 김문호(충목클럽) ▶3위 이용화 이벽준(충목클럽)

■여성부 ▶우승 최명옥 황미진(개나리클럽) ▶준우승 임진경(개나리클럽) 허옥(포천클럽) ▶3위 이미숙(해바라기클럽) 이태형(화목클럽) ▶3위 이기래 박영애(개나리클럽)

김영복 기자 best114@hitel.net

학교체육의 현장 1 일동종합고등학교

수영,바이애슬론,태권도 집중 육성

엘리트 체육의 토대 탄탄하게 구성



일동종합고등학교는 수영과 바이애슬론, 태권도 종목을 집중 육성하고 있다.

수영은 싱크로나이즈스위밍 종목을 육성하고 있으며 현재 2명의 특기생을 지도하고 있다. 연습은 주로 소흘읍 송우리에 있는 청명수영장에서 연습한다.

현재 학년 유미나 학생과 1학년 추봉준 학생을 육성하고 있다.

바이애슬론(Biathlon)종목은 일동종교가 전국에서 독보적이다. Biathlon이란 글자 그대로 두 가지의 운동이라는 뜻으로서 스키의 장거리경기와 rifle소총 즉, 동적인 스포츠와 정적인 스포츠를 복합한 동계운동으로 등에 소총을 메고 스키를 타고 정해진 코스를 주행하면서 지정된 사격장에서 사격을 하는 경기를 말한다.

일동종합고등학교 바이애슬론은 지난 89년도에 선수 3명으로 창단했다. 2004년도에는 남자 6명과 여자 4명으로 구성돼 있다.

바이애슬론 팀은 교장 홍영표, 교감 김경래, 감독 서건석,코치 김광명, 선수 남자 윤정빈(고2), 최준기(고2), 오유상(고2), 김경렬(고2), 고진성

인 최준기 3위(동)등의 실적을 거양했다.

올 1월15일에 개최된 제18회 회장배 전국 바이애슬론 대회는 다음과 같은 성적을 얻었다. ▶남고 10Km 개인 1위(금)-윤정빈 ▶남고 20Km 개인 1위(금)-윤정빈 ▶남고 단체 3위(동)-윤정빈, 김경열, 오유상

지난 5월19일 강원도립바이애슬론경기장에서 열린 제15회 문화관광부장관기 바이애슬론대회에서 일동종합고등학교는 남자 고등부 4km스프린트 1~3위를 석권했다. 첫날 남고부 4km스프린트에서 최준기가 15분45초, 윤정빈(16분22초), 김경열(16분59초5)등 1~3위를 모두 휩쓸어 남고부 왕자임을 입증했다. 서 감독은 바이애슬론 종목을 제대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초등학교때부터 스키 선수를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일동종교에서 육성하고 있는 종목은 태권도다. 태권도팀은 교장 홍영표,교감 김경래, 감독 양성호 교사로 구성돼 있다.

태권도는 2000년 전 한국에서 독자적으로 창시된 고유의 전통 무술로, 오늘날 세계스포츠가 된 격투경기이다.

태권도는 이제 세계화된 국제적으로 공인된 스포츠로 2004년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었다. 태권도는 정신운동으로서 상대편으로부터 공격을 받았을 때 맨손과 맨발로 인체의 관절을 무기화하여 자신을 방어하고 공격하는 무도이다.

일동종합고등학교 태권도는 지난 94년 10월 25일 창단했다. 주요 입상실적은 제27회 경기도 학생체육대회에서 허준석과 이경진이 각각 3위를 차지했다. 2002년도 국가대표선발 예선대회에서는 박지숙(3위), 제12회 용인대학교 총장기 태권도 대회는 박지숙(2위), 제83회 전국체육대회 경기도 1차 선발대회 김보람(2위), 모승철(3위), 제83회 전국체육대회 경기도 최종 선발대회 조민기(1위), 제13회 문화관광부 장관기 전국 남·녀 중고등학교 태권도대회 조민기(3위), 박지숙이 1위를 차지했다.

일동종교 홍영표 교장(사진)은 "일동종교는 통합형 자율시범학교로 지정, 운영되고 있다"며 "좋은 학교 만들기 일환으로 교육부의 지원을 받아 기숙사를 신축해 우수한 인재를 양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학교체육에 대해 홍 교장은 "바이애슬론은 경기도교육청 지정종목으로 육성되고 있으나 코치예산 외에는 전혀 지원이 안되고 있는 실정이다"며 "지역사회의 도움이 절실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일동종교가 엘리트 체육활성화를 이루어 온 것은 그간의 많은 노력이 필요했다. 이제 일동종교 엘리트체육이 명맥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지역 사회와 포천시의 관심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김영복 기자 best114@hitel.net

(주) 오리표 (싱크) 주방가구

싱크대, 붙박이장, 거실장, 신발장 및 각종 수납장 취급 !!!

인간중심의 부엌문화를 창출하는 "오리표 주방 가구"



좋은 품질과 저렴한 가격으로 견적, 실례 무료 A/S 를 상담 하여 드립니다.